

“물이 20층 밖에 못가?” ‘고층아파트숲’ 광주 소방능력 ‘굴욕’

광주서부소방서, 광천동 48층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
70m급 고층용 굴절사다리차 없어 한계 드러내
대형화재 대비 장비 늘리고 구조 인력 보강해야

“어떡해, 소방차 물이 저기밖에 안 올라 가네요?”
광주서부소방서가 14일 서구 광천동 호 반씨빌플래이스(48층) 앞에서 실시한 ‘고 층건물 현장적응훈련’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던 소방장비 부족 등 화재진압 능력 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훈련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다목적 펌프차, 고가사 다리차, 물탱크 등 소방차량 4대와 17명의 인원을 투입, 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훈 령을 진행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33 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훈련이었다.
가상 시나리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펌 프차와 고가사다리차(46m)가 48층 건물 앞에서 물을 쏘아 올려 화재를 진압하 고, 구조대원들이 나서 비상용 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을 활용해 건물 내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구조하는 것으로 짜여졌 다.
훈련이 시작됐고 펌프차와 고가사다리 차가 짜여진 각본대로 소방호스로 물을 쏘 아 올렸다. 소방대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순간,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과 긴 탄식이 흘러나왔 다.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가 쏘는 물줄기 가 48층 건물 중간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광경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가

사다리차(46m)가 사다리를 최대한 쭉 뻗 어 뿔어낸 물줄기도 건물 상층부는커녕, 중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우리집인 화정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30층이 넘는데 어떡하지?”, “사다리차가 고장난 게 아니냐?”
광주지역 최대 유통 인구가 몰리는 광천 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뤄진 이날 훈 령은 광주 소방당국의 열악한 초고층 건물 화재 대응 능력을 한 눈에 드러낸 ‘굴욕’ 사 건이었다.
현재 광주 소방당국이 보유한 고가사다 리차로는 50m 정도인 20층 정도까지만 접 근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도 확인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 대 의원이 내놓은 소방장비 보유현황에 따 르면 광주·전남에는 초고층 화재에 필수적 인 70m급 굴절사다리차가 없다. 구조대 인력도 법정인원(광주 125명·전남 526 명)보다 광주는 18명, 전남은 113명이 부 족하다. 초고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 했을 때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장비가 여 의치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방 장비 확 충뿐 아니라 건물내 진화 시스템을 강화하 고, 화재 예방·대피 훈련과 교육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서부소방서가 지난 14일 실시한 고층 건물 화재 대응훈련. 다목적 펌프차와 사다리차에서 쏘아올린 물줄기가 고층건물 중간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주서부소방서 제공>

충장축제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대중음악·미술 등 6개 부문

광주시 동구가 충장축제 온라인 영상 콘텐츠 발굴과 지역문화예술인 자기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추억의 충장축제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동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충장축제를 전격 취소하는 대신에 비대면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고자 시와 정부에 건 의,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하게 됐다.
구는 서포터즈를 통해 ‘충장축제’ 문화 예술 영상을 발굴해 축제 공식SNS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축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 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대중음악 ▲국악 ▲음악 ▲연극 ▲미술 ▲무용 등 6개 부문이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며 신청 단 체의 대표자는 모집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참여방법은 동구청 및 충장축제 누리집 을 참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 는 30일까지 이메일(cjfest1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정 된 단체는 충장축제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 구독, 공연영상 촬영 또는 작품 결과 물 제출 등 충장축제 온라인 공연콘텐츠 제작참여 및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임태 동구청장은 “올해 제17회 추억의 충장축제는 감염병 확산방지와 관람객 안 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면서 “축 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고 지역문화예술 인을 응원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 그램 등 신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호남대, 교육부 ‘AI 온라인 공개강좌’ 선정

호남대학교가 교육부의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AI(인공지능)분야 지정공모’에 선정돼 전교생을 인 공지능(AI) 융합인재로 키우는 국내 대학 유일의 AI특성화대학 입지를 한층 강화하 게 됐다.
‘K-MOOC’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로, 무크 전 문가와 해당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이 기관 운영 역량과 강좌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0년 인공지능(AI) 12개 분야에 걸쳐 신규 과제를 공모했다.
호남대는 이 가운데 ‘계산 인식분야’에 선정돼 ‘수학으로 푸는 자율주행 AI 강좌’ 를 개발해 컴퓨터공학과 백관 책임교수와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은경 교수의 팀티칭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학술대회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등 공동주관

전남대학교가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아 사건의 역사성을 되새 기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소장 김경학 교수)는 16일 서울 수림문화재단 에서 ‘재중동포사회의 변천과 현재, 미래 전망-간도 한인사회에서부터 한국 귀환 에 이르기까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재외한인학회, 재외동포연구원, 충남 연구원,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한국이 주중포정책개발연구원 등 국내 5개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 회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기 념하고, 과거 간도 한인사회와 현재의 중 국조선족사회에 이르는 긴 역사적 과정 과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이 대승 을 거둔 청산리전투(1920년 10월 21 일)를 1주일 여 앞둔 시점이며, 봉오동·

청산리전투 100주년이기도 하다.
학술대회는 7개 세션의 주제발표와 토 론을 진행하며, 세션별 소주제는 ▲봉오 동·청산리전투의 역사성과 간도 한인사 회 ▲간도 한인사회의 독립운동과 아카 이빙 현황 ▲봉오동·청산리전투와 충남 인 ▲중국 조선족의 초국적 이주와 공동 체 ▲재한 조선족 이주와 노동 ▲재외동 포 귀환이주와 법적 제도적 과제 ▲러시 아 극동시베리아와 한국 재외동포 등으 로 구성됐다.
김경학 소장은 “항일독립 정신을 계승 하고, 재한 조선족 동포와의 상생을 도모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라 며, “특히 봉오동·청산리전투의 역사성 을 되새기고, 간도 한인사회의 전반에 대 한 이해와 현재 중국조선족 사회로의 변 천사 등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향후 미 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 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교내 일제 식민잔재 청산 조사 완료

광주·전남 교육청 전국 유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만이 전 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 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5일 학교 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교육청이 주 관해 조사를 완료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중 광주·전남 두 곳에 불과하 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일제 식민잔재)조사가 완료된 광주시교육청 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조사 결과 보

고서를 발간하고 상징물 등을 교체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 다”며 “전국 학교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에 대한 조사와 연 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국민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80.1%)은 친일잔재 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휘국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모두 전교조 소속의 역사 교사 출신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 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 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 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 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 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 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